

하나님의 다림줄 3

거절의 벽돌 - 감정적인 영역 계속...

4. 우울

- (1) 단순한 우울은 상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
- (2) 우울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거나 상실되고 있다는 징후임
- (3) 우울을 너무 가벼이 여겨도 혹은 무겁게 여겨도 문제임
- (4) 오랜 시간 우울을 방치하면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음
- (5) 우울의 상태가 길어지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감정표현이 안되어 무관심의 벽돌을 쌓게 됨

5. 무관심

- (1)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서 나옴
- (2) 나의 우울이나 기타 요인으로 형성된 무관심의 벽돌로 인해 타인이 거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음 -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것에 관심이 없음
- (3) 내가 나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림
- (4) 강한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보면 마음이 묶여서 조절이 어려워짐. 겉으로는 무관심으로 표현되지만 몸이 다양한 고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생김
- (5) 여호와 로이 (나를 살피시는 하나님)를 체험해야 함

거절의 벽돌 - 지적인 영역

우리의 사고 과정과 그 과정으로부터 파행되는 태도에 관련이 있음

1. 열등감

- (1) 본능적인 수준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은 많은 지성인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명료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마비시킴
- (2) 삶에서 거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실제로 열등하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됨
- (3)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방치하면 자라서 열등감이 자기 정체성으로 고착화됨
- (4) 이 열등의식이 너무 심해지면 거꾸로 우월감의 벽돌로 넘어가버릴 수 있음

2. 불안정

- (1) 사랑의 결핍,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거절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
- (2)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됨
- (3) 과한 액션을 취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심한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됨

3. 실패감

- (1) 거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갈등 중 하나
- (2) 실패감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면 무가치함의 자존감을 가지게 됨
- (3) 모든 실패에 대해 계속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실제적으로도 실패를 중독처럼 반복하게 됨
- (4) 탓을 하지 않을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해야 함

4. 죄의식 혹은 정죄감

- (1) 정죄감은 자신이 자신을 때리는 것임
- (2) 죄책감은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게 되는 당연한 감정임
그러나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음

거절의 벽돌 - 영적인 영역

성격 발달 벽돌의 마지막 영역으로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본체인 영적인 세계이며 관계를 맺을 때 그 통로가 되는 영역

1. 희미해짐 → 2. 죽어감 → 3. 꺼짐 → 4. 낙심 → 5. 절망

- (1) 영혼의 촛불에 사단이 유리컵을 씌워버리면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꺼져버림
- (2)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불꽃이 꺼져버리게 됨
이 벽돌들의 소유자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공격함
- (3) 이런 과정 때문에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 끝까지 가보면 자기 거절의 최종행위는 결국 자살이 되어버림
 - 거절이라는 인간적인 다림줄을 따라 벽돌을 쌓는 것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며 계속 그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망가질 수 있음
 - 그렇다고 거절의 다림줄을 완강히 거부하기만 하다가는 반동적으로 반항의 다림줄을 수용하는 길로 갈 수 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, 지적, 영적인 전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야 함

순종형 그리스도인



- 거절의 벽돌에서 윗부분이 많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
" please love me. I'll do anything for you. "
 - 필요를 만들어냄, 돌려받기 위해 해줌, 공치사 많음
 -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"NO"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음
 -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과 관심을 갈구함
 -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거나 자신이 한 무언가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받음
 - 이런 경우 나중에 탈진하고 혼자 지치며 각종 정신, 신체질환의 문제를 일으킴
 - 주변인들은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불편함
- 예> 사울왕: 백성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체면을 살려달라고함
- >굽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됨

“ 할 수 없다 ” 형 그리스도인

그림 2

수동적인 반응



수동적인 반응

-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함 나도 다가가지 않음
-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. 나는 포기했습니다.
" Nobody loves me. I give up "
- 자기몰입, 정적, 우수에 젖음, 자기연민, 자기혐오, 자기증오,
- 수치감, 도피주의,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높음
- 어린시절 수치감이나 정죄감으로 인한 부분이 많으며
어느날 자살할 수 있는 케이스
- 사랑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휘발유 없는 차를 끌고가는 것과
마찬가지임

예> 모세 : 하나님이 끌어내서 사용하심